

윤호중 “대장동 특검 윤 당선인도 동의…3월처리 문제없을 것”

민주 원내대표, 기초의원 3~5인 선거구로…다당제 목표 “이재명 후보 거취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시간 드려야”

20대 대통령선거의 가장 뜨거운 화두였던 ‘대장동 의혹’이 특검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 모두 대장동 특검을 강조한 만큼, 조만간 후속 작업도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3일 대장동 의혹 특검 문제와 관련, “3월 임시국회 처리에 아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비대위원장인 윤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당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특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 실시에 대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자께서 동의한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 여야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 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윤 후보를 겨냥해 제출한

이 요구안은 상설특검법을 활용해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에 착수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지난해 대장동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3일 유세에서 민주당의 특검안 요구를 비판하면서도 “특검이든 뭐든 진상만 밝히면 저희는 대찬성”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추진 중인 ‘기초의원 최소 3인 이상 중대선거구’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2인 선거구를 없애고 3-5인 선거구를 두는 것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총선 때 위성 비례정당 문제를 거론하면서 “당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과의 말을 드린 적이 있다”면서 “우리당이 추구했고 지난 대선에서 결정한 바 있는 다당제 국회의로의 전환, 의회 내 다원주의의 실현이라는 목표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내에서 당 지도부로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데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제가 어떤 일로도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당 비대위 체제가 지방선거를 80일 앞둔 상황에서 출범하게 됐고 선거 준비 중에 비대위를 (다른 방식으로) 개편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전 지도부에서 내렸고 그 사정을 의원총회에서 설명하고 양해를 얻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두관 의원 등 일부 의원이 ‘이재명 비대위원장 체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서는 후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시간을 좀 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그 역시도 후보께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대선 참패 원인을 묻는 말에는 “참패냐 석패냐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다”면서 “어떤 성격의 패배인가는 객관적 평가를 받는 것보다 공식적인 논의기구를 통해 평가작업을 한 뒤에 국민에게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n번방 추적단 불꽃' 활동가 출신인 박지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내용의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또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 “이 후보를 지지하고 아깝게 패배한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가진 국민이 계시다”면서 “이제 중앙정부가 국민의힘으로 남

여기 때문에 지방정부를 통한 분권을 호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봉선2동 윤석열 지지 40% 육박 ‘이례적’

제5투표소 38.8% 기록

3·9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텃밭’인 광주 봉선2동 제5투표소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0%에 가까운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지역이 나왔다.

이는 윤 당선인이 광주 전체에서 기록한 득표율 12.7%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남구 불로초중학교에 마련된 봉선2동 제5투표소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704표를 얻어 38.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윤 당선인은 봉선2동 전체에서도 27.1%에 달하는 득표율을 얻어 광주 전체보다 2배 이상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봉선2동에서 11.39%의 표를 얻었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 봉선2동 득표율은 문재인 후보 57.09%, 안철수 후보 33.39%, 홍준표 후보 2.48%를 기록했다.

윤 당선인이 이 곳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것은 광주의 대표적인 ‘아파트 부촌’이라는 점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입주한 한국아텔리움1단지 155㎡

의 경우 지난해 9월 16억4000만원에 손바뀜됐다.

2017년 8억·9억대에서 5년새 2배 가량 오른 가격에 실거래 된 것이다. 이 아파트 같은 평형의 공시가격은 최고 11억3000만원으로 1주택 소유자 기준 중전 중부세 납부 기준인 9억원을 훌쩍 넘는 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으로 꼽힌 아파트가 풀려 있는 봉선2동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이 치솟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제과 대결 가나

10여명 출마 여부 하마평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쟁이 과열 양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당내 주도권 경쟁이 펼쳐지면서 자칫 제과 대결구도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오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5선의 조정식, 4선 안규백, 3선 김경협·박광온·박완주·박홍근·이광재·이원욱·윤관석·홍익표 의원(가나다 순) 등 10명에 달하는 의원들의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제외하면 대체로 출마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당내 제과 대결

전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고 보고 내심 경계하는 분위기다. 대선 패배 수습이 급선무인 상황에서 자칫 당내 분열상만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여전히 당내 최대 세력인 친문 진영의 결집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단 출마 후보군 가운데 박광온·홍익표 의원은 대선 경선 때 이낙연 전 대표를 도운 범진문, 안규백·이원욱 의원은 정세균계, 박홍근 의원은 옛 박원순계 출신으로 대선 초반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다. 이광재 의원은 원조 친노 인사로 분류된다.

민주당이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변형된 바티칸

교황 선출 방식(콘클라베·conclave)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당내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반면, 당내 일각에서는 ‘콘클라베 선거’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주중으로 선관위를 구성해 원내대표 선거에 실제 콘클라베 방식을 도입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는 25일 전에 치르기로 한 선거 날짜도 선관위에서 확정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공동운명체’ 국힘·국민의당 합당 원하지만 난기류도

당권·지방선거 공천 등 걸림돌

대선 후 추진하기로 했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논의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단일화를 했음에도 역대 최소 득표자로 정권을 교체한 양당은 거대 민주당에 맞서 한배를 탄 처지라는 점에서 합당을 속도감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막상 협상을 시작하면 당권이나 지방선거 공천 등 조건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양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측 모두 최대한 이른 시일에 분란 없이 합당을 끝내자는데 공감대가 있다.

당장 6월 1일 지방선거를 제대로 준비하려면 공천 문제 등을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데다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한 양당이 벌써 갈등하는 모습을 연출하면 공멸한다는 위기의식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지난 10일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역할과 관련해 “일단은 (국민의당과) 신속한 합당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에 따른 지도부 정비를 마치는 대로 국민의당과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대표는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한기호 의원을 사무총장에 임명하는 등 지방선거와 합당 논의에 대비해 당직을 개편할 예정

이다.

관심은 합당 조건이다.

국민의당 출신 인사의 최고위원회의, 조직강화특위, 공천관리위원회 등 당 핵심 기구 참여 보장을 통해 ‘예우’하는 게 골자다.

공동대표제 도입 여부와 작년 합당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당명 변경은 논란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 여러 인터뷰에서 당명을 바꾸거나 대표 권한을 양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으며, 국민의당도 관련 요구를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합당 조건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과 어느 정도 맞물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다.

야권의 대선 승리에 기여한 안철수 대표에게 갈 지분을 인수위 참여를 통해 보장하느냐 아니면 통합당 내 권력을 배분으로 가느냐에 따라 합당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안 대표 측은 국민의힘에 흡수 통합되는 입장에서 당권을 무리하게 요구하기보다는 인수위 참여 등 새 정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더 관심을 두는 분위기다.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등 주무 자리에 어느 당 인사를 공천하느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국민의당은 일정 지분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간 이 대표는 특별한 배려 없이 경선을 기본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나주노안지구 일반형 단독주택용지 분양공고

용도	필지수	면적(㎡)	분양금액(원)	(분양)신청예약금	건폐율	용적률	층수	공급방법
일반형 단독주택용지 (일반공급)	9	476 ~ 957	229,194,000 ~ 474,672,000	필지별 1,100만원	50%	100%	2층	추첨

* 사업대상지 주소 :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355번지 일원

구분	일정	장소
분양공고	'22.3.14(월) ~ 3.24(목)	신문(3.14) 및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3.14~3.24)
분양신청서 제출	'22.3.21(월) 9:00 ~ 3.24(목) 13:00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 (http://land.kwater.or.kr) * 온라인청약시스템 회원가입 후 참가신청 가능, 신청금 납부계좌는 참가 신청서 부여
신청예약금 납부	'22.3.21(월) 9:00 ~ 3.24(목) 14:00	
추첨	'22.3.24(목) 15:00	
당첨자 발표	'22.3.24(목) 18:00	
계약체결	'22.3.28(월) ~ 3.31(목) (평일 10:00 ~ 17:00)	K-water 영산강보관리단 운영부 (광주광역시 남구 송촌보길 90)

3. 분양 신청자격
가. 실수요자(분양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나. K-water 임직원 및 임직원의 배우자·부모·자녀는 분양자격 제한

4. 대금납부방법
가. 일반형 단독주택용지(일반공급) : 신청자가 단기납부 또는 분할납부 중 선택가능

구분	계약금(10%)	중도금 및 잔금(90%)	비고
단기납부	계약체결시	3개월 이내 (80%) / 6개월 이내 (10%)	할부이자 미부리
분할납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체결시	1년 6개월 내 3회 균등납부	할부이자 부리

* 세부사항은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http://land.kwater.or.kr) 분양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양안내 K-water 영산강보관리단 운영부 경영과 ☎(062) 600-2117
광주광역시 남구 송촌보길 90

2022. 3. 14.
K-water 영산강보관리단장

꼭! 받아야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은신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